

지역주의 문화담론의 확장 그 한계*

- 한, 중, 일의 시각을 중심으로 -

박희영**
hyp0723@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동아시아 문화담론의 근원적 한계 |
| 2. 동아시아 지역인식 현황과 그 차이 | 5. 나가며-한계 극복과 새로운 지역주의 문화 |
| 3.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논의의 확대와 실상 | 담론 전망 |

主題語: 지역주의(Regionalism), 문화(Culture), 교류(Exchange), 한계점(Limitations), 확장(Expansion)

1. 들어가며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냉전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또 다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한반도에서의 참혹한 전쟁, 사회주의 국가로서 변모해가며 새로운 흐름과 역사를 만드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 하에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의 재생 속에서 한, 중, 일 삼국이라는 바탕 하에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이해관계에 따른 반목이 진행된 이진투구 양상이 어지럽게 전개되는 지역 공간, 또 다른 형태의 혼돈의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하여 아시아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묶는 공동체 논의와 그에 따른 움직임은 더욱 축소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지난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냉전질서의 하나의 커다란 축이었던 소련이 1991년 연방 해체와 더불어 전 세계는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변혁의 질서와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수면 하에 잠자고 있었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지역주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 세계화라는 역행할 수 없는 새로운 흐름과 그것에 반대하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2033580)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반세계화의 논쟁 속에서 세계화에 대한 반감을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공간으로서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주의 담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¹⁾이라 말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이 본격화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히 진행되어 가며, 그 논의의 중심은 주로 경제라는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미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전시대와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화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루어질 당위성이 있음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위적인 상황과 흐름 속에서도 논의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상황인식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과거 이해와 반목을 거듭해오며 복잡한 지형도를 그려온 이 지역이 유럽연합과 같은 긍정적인 롤 모델과 같이 하나의 공동체라던가 연합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과 상황을 떠나서 공동체와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격과 그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인식적인 공감대가 없이 다만 국가 정치적인 위정자들의 판단에 의하여 급급하여 나오게 되는 성급한 인식적인 바탕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문화적 혹은 정서적인 유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인식적인 토대가 없이 서로의 경제적인 이득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가능할 것인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²⁾이라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이러한 공동체 혹은 연합체 형성과 관련된 가능성의 문제는 결국 모두 그 지역의 문화적인 바탕에 대한 토대가 성립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며, 서로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라는 밑바탕이 그려지고 도모할 수 없는 한은 공동체 성립과 관련한 논의는 결국에는 좌초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함의적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19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들이닥치면서 그러한

1) 하영선 편(2008)「동아시아론의 역사」『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동아시아 연구원, pp.16-18

2) 정갑영(2004)「동북아 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정책」『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법문사, pp.237-240

지각변동은 정체되어 있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문화적 교류를 가속화시키게 만들었다. 그 지역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그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70-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대중문화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면,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한류를 비롯한 또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그 위세를 드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하여 영화, TV, 드라마, 가요 등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지식의 공유와 인적교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그 동안 반목하던 역사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의 반목 그리고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던 문화적 영향관계가 세계화의 물살에 휩쓸리며 급속도로 빠르게 그 한계성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문화적 협력과 화합 그리고 상생의 기대감과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좀처럼 협력적인 제도의 기반 구축이 어려웠던 역내의 경제 및 안보분야의 통합노력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문화적 공감대가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발상의 전환점이자 출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근본적인 문화적 뿌리는 예단하던 것보다는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로도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최근의 지역권 내에서의 이러한 움직임과 흐름은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또는 협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문화적인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토대가 되어 선행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연히 여겨져 왔던 지역의 문화적 요소들이 때에 따라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정반대의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냉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문화에 신경을 쓸 여력도 관심을 쏟을 의향조차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로 인해 오늘날에도 문화라는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론적 합의가 제대로 논의되고 이루어지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정치와 경제,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전개되어 왔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문화공동체 또는 문화협력을 논하는데 새로운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가며 문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³⁾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탈냉전기에 들어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역권내의 문화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담론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동안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온 문화담론들의 흐름과 그 한계와 그리고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동아시아 지역인식 현황과 그 차이

2.1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개념 인식의 차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개념은 여러 개의 국가를 포함한 지리적 경계로서 지역의 의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국가의 영토를 지칭하는 지역의 개념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인식적인 문제에 이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는 분명한 영토적 경계를 갖는 정치적 공동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국가들 간에 영토 분쟁은 항상 상존해왔지만,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현재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국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납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도 대체로 자신의 국가적 영토경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영토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를 넘어선 범위에서의 지역적 경계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서로 간에 납득할만한 일반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찾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오명석에 의하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공동체에 대해 해당하는 그 권리, 즉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치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수준에서의 지역정체성은 잘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공정적으로 보아서 광의의 지역공동체는 형성

3) 민병원(2008)「동아시아 공동체와 문화네트워크」『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동아시아 연구원, pp.361-364

과정에 있으며, 부정적으로 보아서 그러한 논의는 일부 정치가와 지식인에 의해서 제기되는 ‘허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받아들여진 인식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개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가 어떤 지역적 범위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매우 애매모호하여, 개개의 국가적인 관점과 득실에 따라서 그 지역적 범위의 지칭과 관계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 포함된다고 간주되는 국가들이 서로 동북아를 같은 지리적 공간으로 상정하고 고려하고 있는지, 나아가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제창하는 한국 내에서도 동일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와타나베 히로시에 의하면 “동북아의 범위에 러시아의 극동 부분인 사할린과 연해주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몽골과 베트남은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포함될 수도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동북아 논의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할린과 연주를 동북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일본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와다 하루키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란 저서에서 “동북아는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의 7개국과 타이완, 오키나와, 하와이, 사할린, 쿠릴열도의 5개의 섬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역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되는 동북아의 범위와는 일정부분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의 주장에는 일본에서 관심을 갖는 인근 도서들과 함께, 미국과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일본의 입장이 철저하게 계산되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동북아 논의가 주로 대륙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의 동북아 논의는 해양을 통한 연계를 중시하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시아 논의와 인식은 동아시아 논의와 맞물리면서 한국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동북아와 동아시아는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입장과 더불어 양자는 개념적으로 철저하게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동북아와 동아시아는 서로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는 지리적 개념과 실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개념에서는 공통의 문화유산을 갖는다는 점이 지역을 구분하고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가정되며, 유교문화, 한자문화와 같은 중국 문화를 수용하고 이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공유된 문화적 공감대와 문화유산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동아시아는 동북아에 비해서 보다 확장된 지역개념이긴 하지만, 그것은 중국 문화가 그 주변국가에 역사적으로 미쳐왔던 영향관계를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와 동아시아를 명확하게 나누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인식되어 온

동북아 중심적인 동아시아 개념 혹은 중국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동아시아 개념이 자리잡고 있다. 새롭고 광의의 동아시아 개념은 동북아만 아니라 동남아 10개국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동북아와 동남아는 서로 구분되면서 대등한 지위를 갖는 지역개념으로 동아시아의 하위 지역을 구성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단순히 동북아의 외연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지역개념이며, 더욱이 중화질서나 중국문화가 이 지역에 공통의 문화유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의 개념과 그 경계의 설정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명석에 의하면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은 어떤 국가를 그 안에 포함시키느냐는 것과 동시에 어떤 국가를 배제시키느냐하는 판단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어서, 한국이 한중일을 동북아의 중심적인 국가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중국과 일본에서 생각하는 동북아의 범위가 한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없는 행위와 다를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또한 “한중일 이외의 국가에서 동북아의 범위를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동북아라는 지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⁴⁾ 이처럼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득실에 따라서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설정과 경계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2 동아시아 3국의 지역공동체 인식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가변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은 더욱 더 규정하기 어려운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들 국가들은 공동체라는 표현 대신에 이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들을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김광역에 의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는 공간개념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권을 설정하고 이미 전 세계의 화교를 잇는 화교 네트워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권을 추구하여 왔으며, 최근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태평

4) 오명석 외(2004)『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통일연구원, pp.3-6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양 시대를 맞이하는 담론을 바탕으로 삼아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⁵⁾

그에 따르면 “여기에는 이른바 대중화문화권 혹은 대중화민족권의 개념이 들어있어서 동북아시아라고 설정한 공간을 훨씬 넘어서 동남아시아와 미주지역 및 남태평양 군도까지를 엮어 내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미국 혹은 서구 중심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아시아 지역의 맹주라는 패권주의적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며 예전부터 견지해 왔던 중국의 아심을 지역주의 담론에까지 담아내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동아시아 담론의 경우 19세기 말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과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아시아 일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후쿠자와의 탈아입구론은 그가 말하는 아시아의 ‘나쁜친구들’에서 벗어나 서구 열강의 대열에 진입하자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일체론은 서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미덕을 아시아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후 일본에서 붓물처럼 터져 나온 여러 가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들은 대부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적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특히 냉전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미국의 존재를 전제로 깔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소위 대동아 공영권이란 명이래로 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제안은 의심받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적 체를 내걸고 제국주의적 확산 정책을 추구했던 수사와 이미지로써 제국주의 혹은 신식민주의적 발상을 은폐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쉽기 때문이다.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이 정치적 수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과거의 대동아 공영권 구축의 이념적 토대 위에서 신대동아 공영권을 아시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입장을 확보하는 데에 열악한 입장에 있어왔다.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나 경제적 관계에서 한국은 냉정체제의 산물인 분단국으로서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언제나 열세였다. 이러한 열악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들어와 한국이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중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서 지역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였다.⁶⁾

위에서 언급한 김광역의 의견을 참조해 볼 때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표현은 중국이나 일본에

5) 김광역(2004)「동북아시아의 존재양식: 현실과 상상의 사이」『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법문사, pp.24-25

6) 김광역(2004), 위의 책, pp.3-4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서는 살펴본 것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 두 나라에게 있어서 어쩌면 공동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규정의 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들 나라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그들의 이익에 부합될 때는 인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 여겨져 왔던 것이다. 최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적인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상으로 문화를 설정하여 정치, 경제, 안보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부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3.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논의의 확대와 실상

3.1 동아시아 3국의 지역공동체 인식

앞에서 언급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문화협력에 관한 관심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지역주의 담론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분야에서 공동체 구축 또는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비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광익에 의하면 “아직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적어도 문화적 변수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여, 이는 동아시아가 20세기 중반 이래로 냉전의 대결구도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의 하나라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고 이야기하며,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통합의 수준도 통합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최근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온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기본 구상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불신과 갈등이 크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문화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민병원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의 밑바탕에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문화적 상호 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것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는 문화중심주의의 사고방식이

7) 김광익(2004), 앞의 책, pp.1-5 참조

이러한 구상을 떠받치고 있다⁸⁾고 하는데 그의 주장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3.2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현실과 가능성

이처럼 동아시아의 통합과 공동체에 대한 담론에서 문화의 변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추세는 지극히 당연한 흐름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지역 연구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한 지역 연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여기서 문화는 지역학적 관점에서 비롯하는 관계적 문화연구로서, 역사나 사상사 그리고 한 국가의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 현대문화의 자장과 교류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 공동체의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학적 문화연구는 이미 유럽 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동아시아 지역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적 접근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 일류 등의 동아시아 대중문화 개방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인 구조변화, 범세계적인 정보통신 혁명, 문화가 갖는 의미와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문화교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 정치적인 발전과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문화적인 교류의 증대 및 상호간 이해의 바탕으로서 문화적 공감대를 찾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넓은 의미의 한자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역사적 전통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서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도록 해주며 이러한 유대관계는 오랜 기간 내적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가능케 해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횡행하던 지배집단의 문화적 동화정책을 넘어서는 상호 존중의 생활세계를 의미한다. 나아가서 세계적인 추세 및 지정학적인 변화는 상호간에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교류 방안을 찾고 또 실행한다면 상호간에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교류의 증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 및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8) 민병원(2008), 앞의 책, pp.364-365 참조

도 불구하고 공동의 문화적 이해를 위한 바탕 및 노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유교문화 혹은 한자문화 역시 문화적 공감대의 바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발전과정이 서로 상이하게 진행되어 온 결과 공감대 형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고구려 역사의 해석문제에서 보듯이 또 일본 교과서 및 독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보듯이 과거 역사해석에 대한 문제와 근대 역사의 경험에서 연유한 문제가 현재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원활한 문화교류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현실적 장애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요소가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과 교류, 공동체의 모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다분히 막연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다. 또한 문화적 지역공동체 즉 문화공동체란 도대체 어떤 내용과 형태를 지닌 공동체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담론의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국가중심적인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이 아직까지 국민국가 건설과 경제발전이라는 근대 패러다임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나 안보와 달리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은 기존의 국경선 내부에 국한될 필요가 없는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세계화의 추세를 고려하면 문화담론이 국가주의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것이 사실이다. 국가주의 문화담론에서는 정치나 군사, 경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영역에서의 교류와 통합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적론을 내세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근에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을 재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러한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도가 국경을 넘는 경우 그 효과가 매우 제한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⁹⁾ 예를 들어 최근에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에서 보듯이 대중문화를 통한 상호 문화접촉은 문화의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호 교류와 이해를 위하여 또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한 교류는 결국 오늘날 상당한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간에 필요한 것이다.¹⁰⁾ 하지만 한류와 같은 문화교류의 추세를 산업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맥락에서 활용하려는 시각 즉 자국 중심의 문화담론이 역내의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타적, 전략적 관점에서 전개되어 나갈 때는 커다란 위험성을

9) 민병원(2008), 앞의 책, pp.361-368 참조

10) 정갑영(2004), 앞의 책, pp.238-239 참조

파생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동아시아 문화담론의 근원적 한계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언급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온 공유와 체험의 전통적인 문화흐름, 즉 타 문화권에 비하여 보다 보편적인 정서적 공감대가 존재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비롯한 일련의 문화담론들은 작금의 문제를 상당부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이 동아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예상하는 대로 그려질 수 있을 까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병원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동아시아 문화담론들은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사이의 문화적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이질적인 면이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고 말았다. 이들 세 나라의 서로 다른 이질성이 부딪치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담론이 그 모습들을 드러냈다”고 언급하며, 앞서 언급한 중국의 중화주의나 화이사상 일본의 탈아입구 관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동아시아 담론이 이처럼 허상으로 변질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결정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한중일 세 나라는 상당히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의 동인을 유교전통과 같은 문화적 특성에서 찾으면서 이로 부터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품게 되었다”¹¹⁾고 말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우리의 지정학적 현실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경제, 정치적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론과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동아시아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기존 연구는 동아시아를 크게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이익 쟁탈과 절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일반적인 동아시아 지역 연구와는 궤를 달리하는 연구 접근법이 있었는데, 이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 한국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동북아 공동체란 개념의 동북아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유럽 공동체처럼 동북아의 정치, 경제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있는데,

11) 민병원(2008), 앞의 책, pp.381-384 참조

이 아젠다는 사실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현 자체가 아니라 그 가능성에 중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동북아 공동체 개념이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실제 한·중, 한·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2007년부터 정기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북아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남·북, 러·일, 한·중, 한·일, 일·중 간의 갈등 등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동북아 공동체 개념 자체는 결코 환상이나 정치적 이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학적 문화연구는 이미 유럽 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는데,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지역 연구에 있어서도 이런 문화적 접근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언급된 2004-2006년의 동북아 공동체 아젠다에서는 동북아시아의 범위를 한, 중, 일 3개국으로 한정하면서 일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단위로서 문화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물론 이러한 동북아 공동체 개념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긴 하지만, 이 연구가 국가의 대외 정책 결정 차원에서의 접근, 즉 문화의 사회적, 정책적 접근이 우선시되면서 실제적인 문화 현상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보다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문화 현상과 문화적 특징, 문화 모델과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또는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를 향한 기반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 한계 극복과 새로운 지역주의 문화담론 전망

유럽 문화 공동체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동시 진행을 증명하는 좋은 예이다. 유럽인들은 이제 국가 개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유럽’이라는 통일된 문화적 지역 블록 구축에 성공했다. 그러나 유럽 공동체와 달리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문화 지형도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우선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 요소로 손꼽히는 ‘유교 사상’은 실제로는 한, 중, 일에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 역시 한, 중, 일에서 공통의 특성이 강하지 않다. 그리고 각국의 문화 이론과 정책 역시 상이하다. 중국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중화사상을 보급하고 있다. 패권주의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중국의 문화와 달리 일본의 문화는 예술가와 문화 창작자들의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약화되었지

만, 문화 산업 측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뒤따르고 있는 점이 일본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는 공동체의 건설 등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일각에서 등장하고는 있으나 사실은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럽에서는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지역 경제 협력과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발전은커녕 지역 내 국가들 간의 적대관계와 의구심조차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 최근에 영토문제로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마찰 현상이 이러한 정치적 긴장 및 갈등의 위험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21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 연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동북아 경제 공동체 개념은 전 세계의 블록화 현상을 배경으로 긴요한 국가적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중, 한-일 FTA 협상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동아시아, 동북아 구성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공동체 구성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상호신뢰 및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가 처음에는 경제 공동체로 출범하였지만, 곧 문화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화 공동체 구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예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인식과 문화담론은 내용과 방향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민병원에 의하면 그 동안의 동아시아 문화담론은 문화공동체라는 모호하면서도 개연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왔고, 이러한 시도들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외면과 오해를 받을 여지를 남겨두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문화통합의 논의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내에서 통용이 가능한 방법론과 담론의 추출이 요구된다¹³⁾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를 기획하며 이러한 가능성의 단초로서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의 구축과 새로운 지역주의 모델과 담론의 창출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문화공동체라는 개념 대신에 문화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모색을 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인식과 개념을 뛰어 넘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 모델과 문화담론을 끊임없는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소외되고 간과되어 왔던 국가나 지역 들을 포함시키는 이를테면 ‘신동북아’ 지역주의와 ‘신동북아’ 문화담론의 설정과 구축도 향후 필요하고 또한 요구되는 선언이라 생각할 수 있다.

12) 오명석 외(2004), 앞의 책, p.15 참조

13) 민병원(2008), 앞의 책, pp.381-384 참조

여전히 현실은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수준과 가능성을 절망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유행처럼 지나가는 선언과 생각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문화담론 및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립될 것이고, 역대 문화담론들은 머지않아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 김광익(2004)「동북아시아의 존재양식: 현실과 상상의 사이」『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법문사, pp.1-5
김세일 외 7명(2014)『동아시아-동북아-新동북아(1)』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네오
김세일-김홍중(2013)「신동북아 지역주의와 문화의 의미」『외국학연구』25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권영철(2004)「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길」『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법문사, pp.281-289
민병원(2008)「동아시아 공동체와 문화네트워크」『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동아시아 연구원, pp.361-368
오명석 외(2004)『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통일연구원, pp.147-149
정갑영(2004)「동북아 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및 문화산업정책」『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법문사, pp.237-240
하영선 편(2008)「동아시아론의 역사」『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동아시아 연구원, pp.16-18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요약>

지역주의 문화담론의 확장과 그 한계

- 한, 중, 일의 시각을 중심으로 -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냉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문화에 신경을 쓸 여력도 관심을 쏟을 의향조차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로 인해 오늘날에도 문화라는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론적 합의가 제대로 논의되고 이루어지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주의 협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정치와 경제,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전개되어 왔던 지역주의 문화공동체 또는 문화협력을 논하는데 새로운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가며 문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탈냉전기에 들어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역권내의 문화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담론에 주목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문화담론들의 흐름과 그 한계와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Expansion and the limits of the Regionalism cultural discourse

- Focusing on the attention of South Korea, China, Japan -

Worldwide since the mid-20th century, including the Cold War era as the various crises faced was the fact that it was not even willing to devote the attention even afford to worry about culture. Therefore clear provisions on the concept of culture today, and also because of theoretical consensus can not be talked about and been done properly, will be able to be true. It is clear that discussions on regional cooperation, attention so far made of the most political and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Gamyeo create a new theoretical basis to discuss the regionalism cultural community or cultural cooperation, which has been expanded in recent years in this regard i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culture that is emerging strongly.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background and problem consciousness, focusing on cultural perspectives within the easement began to receive attention come in the post-Cold War economic groups, which can be one of the mediators and the central axis for cooperation in the area of security in East Asia, Northeast Asia were willing to pay attention to cultural discourse. And we want to think about the flow and its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cultural discourse through them.